

n개의 경험: 코로나 19의 시간

An Unspecified Number of  
Experiences: Living through  
COVID-19

알다시피 작년 한 해는 코로나 19의 시간이었다. 불시에 들이닥친 그 시간은 이제 우리에게 오래된 시간이 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이 시간이 끝이 나겠지만, 이 시간을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 훗날 온갖 양념을 가미해 들려줄 이야기 말고,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속도보다 훨씬 재빠르고 추상적인 시대에 대한 진단들 말고, 지금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 있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의 증언자이자 목격자가 되어주면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시간의 현실을 좀더 생생하고 견고하고 알맞게 붙잡기 위해서 말이다.

2020년 12월 12일, 두 번째 학술대회 두 번째 날, 세 명의 발표자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19의 시간 일 년의 경험들을 각자의 구체적인 위치에서 들려주었다. 그 경험들은 발표를 위해 공들여 모아 분석되고 정리되어 있었다. 그 경험들이 공유되고 있었던 그 시간 우리는 길고 긴 터널에서 다만 끝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를 조금이라도 혹은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첫 번째 발표자 황지은은 「코로나 19를 통과하는 세 명의 디자이너」에서 그것을 터널이라기보다는 안개가 짙게 깔린 도로라고 불렀고, 그 도로를 조심스럽게 달리는 운전자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 명의 친구 디자이너를 인터뷰했고,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코로나 19의 시간 속 삶의 느낌들을 붙잡았고, 이를 아름다운 에세이로 엮어 우리에게 선물처럼 내어준다. 우리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이너이기 이전에 사람이며 삶을 살리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의 맛을 본다.

철학자 정지은의 발표문 「코로나 19 시대의 학습하는 몸과 새로운 강의실」은 코로나 19의 시간이 준 절묘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 기회란 철학이 기술에 대해 보여왔던 뿌리 깊은 불안감이나 위화감 가운데 근거 없는 쪽을 비로소 편안하고 편리하게 펴내어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 코로나 19의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을 유지시켜주는 기술들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이렇듯 기술과 전에 없이 가까워진 기회를 이용해서 정지은은 그 기술을 사용한 비대면 수업의 경험을 더 깊고도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그가 현상학자이기에 우리는 기술과 몸과 경험의 풍부함 연관에 대한 묘사들을 선물 받는다.

영국 경험을 들려주는 김종균의 「코로나 19 시대의 디자인」은 코로나 19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기획되었다가 급작스럽게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디자인해야만 했던 한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까지의 생생한

프로젝트 모험담을 들려준다. 여러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도구들을 새롭게 익히고 사용해가면서 완성해간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상황에서 디자인 요소들이 어떻게 새롭게 배치되거나 활용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종균은 이로부터 몇 가지 귀중한 실용적 함축 내지는 교훈들을 이끌어낸다.

사람들은 코로나 19의 시간을 종종 전쟁의 시간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잘 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라는 적과 힘겹게 싸우고 있다.

발터 벤야민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기이한 현상의 출현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경험의 가치 하락”이라고 불렀다. “전쟁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말없이 돌아오는 모습을 똑똑히 보지 않았던가? 전달 가능한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럴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로 돌아온 그들을?” 전쟁은 영웅들의 모험담을 낳고 이야기를 낳지만, 아무런 전략도 없이 진지전으로 치러진 제1차 세계대전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코로나 19의 시간이 말하자면 전쟁의 시간이라 할 때 그것은 벤야민이 보았던 시간, 즉 경험의 가치 하락의 시간일까? 전달 가능한 경험이 거의 없는? 슬픈 이야기건 기쁜 이야기건 그 무슨 이야기도 낳지 않는?

“N 개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디자이너들과 한 철학자의 경험을, 그리고 그 경험이 내포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가 아직은 경험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 경험의 가치가 하락하여 경험이 공유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경험이 공유되지 않아 경험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